

영어의 번역과 오역사례 연구*

윤성규
(선문대학교)

Yun, Sung Kyu. 2007.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English into Korean and Some Examples of Mistransl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2), 135-164. This paper, by analysing the mistranslated materials done by some students and translators at different levels, aims at discovering some major causes of mistranslation or misinterpretation in turning the source text in English into the target Korean version, and offering several general suggestions to be of help for better translation.

According to Wikipedia, '*transl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a text in one language (the "*source text*") and the production, in another language, of an equivalent text (the "*target text*," or "*translation*") that communicates the same message. *Trans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a number of constraints, including context, the rules of grammar of the two languages, their writing conventions, their idioms and the like. The translator's grammatical and pragmatic competence in the two languages is unavoidably requisite for a better and more correct translation, which raises the very causes of mistranslation.

A column in '*HangyeoreSimmun*', one of major Korean newspapers, revealed an alarming problem in the translated versions far beyond seriousness with the headline '*No Translated Works Keep Credibility and Recommendation*'. Consequently, one factor that should always be seriously considered is the favorable attitude of translators, to say nothing of their grammatical and pragmatic competence in two languages, idiomatic usage, ways of expression, parameters and the like, so as to make the translated version equivalent to the source text, creating the phrase "*One translates best into the language that one knows best.*" One possible sugges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level of the art of translation could be to set up a professional organization, national or government-supported, to grade and publicize the levels of translated works.

주제어(Key words): translation, mistranslation, causes of mistranslation

*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과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1.1. 연구목적

한국인들이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과 한국어를 영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한 번역으로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세계적인 지식을 번역본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된 지식을 접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확한 번역의 필요성은 더욱 배가되고, 오역 사례를 발견·분석하여 올바른 번역에 대한 인식 고취와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번역을 정의하고 올바른 번역을 위한 요소들을 살펴본 후 한국 번역계의 현실을 간략히 소개하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역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오역과 모범역을 비교검토한 후 번역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2. 문제점

한국어의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한역상 대두된 문제점은 심각한 도를 넘었다고 경종을 울린다.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8일자(토요일) 27면 학술난 거의 전면을 차지한, 한국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영미문학연구회 번역소설 영국의 여성 소설가 Jane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21종 샘플평가 결과 “믿고 추천할 번역본, 단 1종도 없다”라는 보도내용은 적잖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편집자 주’를 비롯한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 출판문화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국제적 정보교류가 많아질수록 번역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 번역 풍토는 번역이 지닌 중요성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미문학연구회(공동대표 전수용·윤지관) 산하 번역평가사업팀(팀장 김영희 한국과학기술대 교수)이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영미고전문학번역평가 사업의

‘샘플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 번역 실태가 얼마나 낙후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과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샘플평가에 참여한 3명의 연구자가 1958년 정음사에서 출간된 오화섭 번역본 이래 최근 (2002년)까지 나온 34종의 번역본 가운데 중복 출판된 것을 빼고 모두 21종을 검사대상으로 삼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샘플평가 대상 중 ‘스스로’ 번역은 7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14종은 오류마저 베낀 ‘표절본’이며, 오역·누락은 광범위하여 대부분 원작자 특유 문체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의 번역 실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할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편, 동지 2005년 5월 7일자 (토요일) 17면 ‘출판난’의 ‘줄속 출판에 멧드는 번역문학’이라는 제재하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영미문학작품 가운데 54%가 표절로 밝혀졌으며, 비표절본 46% 중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거나 신뢰성이 높지 않은 번역이 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영미문학연구회가 펴낸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를 펴내어, 해방이후 2003년 7월까지 간행된 영미문학 36개 고전작품 572본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10종이 표절본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소설 57%, 비소설 43%로 소설 분야에 표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이 심한 것들은 주로 ‘오랜 기간을 두고 꾸준히 팔리는 책, 소위 스테디셀러 (steady seller)들인데, ‘주홍글자’는 75%, ‘노인과 바다’ 55%, ‘무기여 잘 있거라’ 66%, ‘모비딕’ 78%, ‘테스’ 63%, ‘폭풍의 언덕’ 68%가 표절본이라고 하니 가히 경악할 일이다. 더구나 ‘로빈슨 크루소’ ‘오만과 편견’ ‘막대한 유산’ ‘모비딕’ ‘무기여 잘 있거라’ ‘허클베리핀의 모험’ 등 13편은 아예 입을 만한 추천본이 없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도 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되었다. ‘맥베스’의 경우 표절본 13종 가운데 8종이 90년대 이후에, 또 ‘햄릿’은 표절본 13종 중 8종이 95년 이후, ‘오만과 편견’ 표절본 14종 가운데 2000년대 출간된 것만도 7종¹⁾에 이른다고 했다.

1) 오화섭, 범우사 2001 (정음사 초간 1958); 남순우, 해원출판사 2002; 김문하, 흥신문화사 2002; 성기조, 신원문화사 2000; 정홍택, 소담출판사 2002; 홍건식, 육문사 2000; 황중

이런 현상은 스테디셀러일수록 출판사와 번역자를 바꾸어가며 오로지 이익창출에만 급급해하는 장사속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특히 덤핑출판사의 한탕주의로 역자 이름을 도용하는 마구잡이식 출간도 꼭 잡고 넘어갈 일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미리 출간시점을 정해두고 번역 일정을 조정하는 졸속출판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 원고를 쪼개서 번역을 맡기거나, 이렇게 의뢰받은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청을 주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는 점과, 특히 문학작품은 번역이 까다롭고 힘든 데 비해 자연과학 분야보다 턱없이 싼 번역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된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이 한국 번역문화의 저질화에 주범이라는 점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1.3. 연구 대상과 방법

번역이나 통역에 있어서 소재언어(the source text)에 대한 번역가나 통역자 또는 학습자 등의 언어능력 특히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언어외적인 화용능력(pragmatic competence)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이를 옮기기 위한 역자의 우수한 모국어 구사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역자의 소재언어 또는 제1언어에 대한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역자의 모국어 또는 제2언어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데 역점을 두고, 위에서 문제 제기된 대상을 제외한 다른 오역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하여 그 원인을 통사론적, 문화적 배경, 중의성, 의미-화용론적, 모국어 구사력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규명하도록 하며, 양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구사력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다. 각 항목별로 오류의 비율 %를 산출하는 것은 본 논문의 성격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번역 자료는 두 종류이다.

첫째는 번역 분야에서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의 오역사례로, 주로 출판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개중에는 방송에서도 재연되었거나, 일부 기자의 영문뉴스의 한역과정에서 발생한 오역 부분과, 이공계 교재로 사용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있다. 당사자들의 실명 명기는 피하고 참고문헌만 밝히

기로 한다.

둘째는 영어전공 학부생과 A, B 특수대학원생들의 결과물인데, 학부생들은 교사형태로 시간제한이 있었고, 대학원생들은 평가 자료임을 예고하고 1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학부생에 비해 경륜이 월등한 현직교사들의 번역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또한 일부 학부생의 번역이 오히려 나은 경우까지 있어서 괄목할 만한 현상이긴 하지만, 연령이나 경륜과 무관하게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오역현상으로 판단되어 연구·정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 대학원생들의 전공배경은 반이 비 영어(독일어, 프랑스어, 교대 등) 전공자로 현직 초·중등 영어교사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야기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편의상 첫 번째 자료를 Group A, 두 번째를 Group B로 분류하기로 한다. 어휘나 통사구조로 인한 다의성 (lexical or syntactic ambiguity), 주어의 유무 등 영어와 한국어의 매개변수(parameter)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역자의 지식이 정확하고 좋은 번역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산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결과분석용으로만 활용하며, 각 사례는 항목별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종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번역은 크게 문어체와 구어체로 분류하고, 장르별로는 소설, 수필, 시, 학술서적, 보고서, 코메디 등을 위시하여 번역내용을 개재할 공간적 제약이 있는 영화자막용, DVD용 등 용도에 따라 번역내용의 길이 등이 실로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문어체와 구어체가 공존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주로 좋은 번역을 낳기 위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각주는 직접 인용문에만 붙이기로 하고 저자의 지식으로 용해된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 현상이라 각주를 달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명기하기로 한다.

2. 중 심 말

2.1. 번역의 정의

어떤 작품을 다른 언어로 묘사하는(rendering) 행위(act)나 기술(art)로서의 번역의 역사는 문학역사 만큼이나 유구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translation이나 interpretation은 말로하면 ‘통역’이요, 글로 묘

사하면 ‘번역’이라는 차이를 두는 경향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번역’을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으로, ‘통역’을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줌.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하고 있고, Wiktionary²⁾는 ‘translation’을 “어떤 소재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행위”로 간단히 정의하는 가하면,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³⁾는 ‘옮기는 행위(act), 방법(method)이나 과정(process)’까지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Wikipedia에서는 번역은 어느 한 제1언어, 소위 소재언어로 된 원본/원문 즉 원전(source text)의 의미를 다른 제2언어로 그에 상응하는 내용 즉 목표내용(target text)로 바꿔 옮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원문의 어떤 의미도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아무리 긴 소재라고 하더라도 원전과 번역본이 동일한 실체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언어의 문법, 관용적 표현, 표현관습 등 많은 제약이 필수적이다. Wikipedia와 최정화⁴⁾에 따르면 source text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target text의 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최고의 번역은 최고의 언어능력을 겸비한 언어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제1언어에서 제2언어로 번역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나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cultural background)까지 판이한 또 다른 언어로 원전의 의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살려내어 제2언어의 언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번역은 ‘반 창작’ 또는 ‘제2의 창작’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2. 번역과 화용능력의 관계

일반적으로 직역(literal or word-for-word translation)은 소재언어를 제2언어로 축자 번역하는 것을 일컫고, 언어외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원전의

2) The act of converting or translating text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Wiktionary>

3) a. The act or process of translating, especially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b. The state of being translated. <The American Heritage>

4) 최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통·번역가. 월, “한국어 능력이 90점인 사람이 89점짜리 이상의 번역은 할 수 없다. 번역능력은 모국어능력에 비례한다.”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을 의역(*free or lose transl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Chomsky가 예로 든 번역(*interpretation*)의 언어외적인 정보(*nonlinguistic information*) 즉 화용론적 지식(*pragmatic knowledge*)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예로 「나의 한 친구가 ‘Today was a disaster’라고 말했다, 오늘 그 친구가 특강(*special lecture*)을 할 예정이었다는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가 ‘강의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구나 (*His lecture went down very badly*),’ 또는 ‘오늘 강의 망쳤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⁵⁾

그렇다면, 만일 화자가 그러한 화용론적 지식이 없었다면, “오늘은 재앙이었어.”라는 오리무중의 무의미한 번역을 하고도, 나아가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는 말을 잊지 못하면서도 역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interpretation*’에 대한 정의를 보면, ‘지금 당장은 명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 또는 ‘어떤 사물의 의미에 대한 지적인 표현⁶⁾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정확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이 통번역의 생명임을 알 수 있다.

지역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은 아니고, 정확한 ‘지역’을 바탕으로만이 ‘좋은 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철칙이다. 특히 이과 계통에는 지역이 더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역이나 화용론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역설적으로 오역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전의 표현에 대응할 적절한 어휘가 제2언어에 없거나 지역하면 개념이나 어휘의 중의성(*lexical ambiguity*) 때문에 엉뚱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경우가 되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 간단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필수적인 예를 보자. [의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상황설정’은 < >로 표시하기로 한다.

(1) I wanted to be with her.

[지역] 나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

5) Andrew Radford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p.3: 11.3-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interpretation: an explanation of something that is not immediately obvious or a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eaning or significance of something <Quick Definition, Onelook.com>

- [의역] 1. 나 혼자 있긴 싫었어. <혼자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 2. 혼자 보내긴 싫었는데. <작별 시 ‘그녀’를 배려해서>
- 3. 함께 떠나고 싶었는데. <작별 시 ‘나’를 중심으로>

만일 (1-의역3)을 영어로 직역한다면 “I hated to send her alone.”이 되고, 의미비중을 *alone*에 두고 한국어로 재 번역하면 ‘내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는 의미보다 ‘그녀를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는 의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미-화용론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Our last garment is made without pockets.*

- [직역] 우리들의 *마지막 의상*은 주머니들 없이 만들어진다.
- [의역]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다.

속담 (2)에 대한 [직역]의 의미가 명확치 않은 ‘우리들의 마지막 의상’을 ‘수의’로 의역까지 해야 번역가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모국어 구사력 문제에 해당된다.

(3) Oh, (you’re) a man *with a plan!*

- [직역] 오, *계획이* 있는 사람! <Sitcom ‘Friends 6’에서 Elizabeth의 아버지 Paul이 남자친구 Ross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면 학교에 비리를 폭로하여 쫓겨나게 하겠다는 말끝에>
- [의역] 참으로 *용의주도*하시군요!

만일 (3)의 [의역]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번역이라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경우는 고사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의역]처럼 번역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모국어 즉 target text에 대한 언어감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경우이다. 참고로 사전에는 ‘용의주도하다’가 be very careful or cautious; prudent; circumspect로 ‘용의주도한 계획은 carefully laid plan 정도로 되어있다.

다음 ‘열녀춘향수절가’의 일부를 보자.

(4) 도련님 반만 웃고 춘향더러 묻는 말이, [곤(困)치 아니하여 밥이나

잘 먹느냐?] 춘향이 부끄러워 대답치 못하고 묵묵히 서 있거늘 춘향
모 ... 춘향이 반만 웃고, [그런 잡담은 말시오.] [그것 잡담 아니
로다. 춘향아, 우리 둘이 업음질이나 하여 보자....

위의 예에서 ‘반만 웃고’가 어떻게 영역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
타낼 수 있을까는 참으로 어려운 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half smiled’나
'smiled half'는 아닌 것 같고, ‘smiled bashfully’나 ‘bashfully smiled’ 조금
나온 것 같으나, 춘향의 경우와는 달리 도련님의 경우는 문맥으로 보아 ‘수
줍어하는, 숫기가 없는, 부끄러운 듯한’ 의미의 bashfully는 덜 적합하다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한 표현이 문맥이나 대상에 따라 달리 번역되어야 그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번역의 과제로 남게 되며, 나아가 정확
한 번역의 중요성을 상기할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아직 처녀요?”라는 한국어문장을 중의성이 있는 영어
'virg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Are you still (a) virgin?” 이라고 영역하
면 “Are you still single?” 이라는 본래의 말화 의미 대신에 ‘a person
who has not had sex’라는 이상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점
에서 보아 번역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2.3. 오역의 유형과 원인

연구방법에서 밝혔듯이 Group A는 통·번역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분
들에 의한 것이므로, context를 밝혀서 오역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고, 필요에 따라 오역 부분을 밑줄을 긋고 사체로 하였다. 설명
편의상 본문 각 문장에 번호를 매겼으며, 정확한 [직역]이 정확한 [의역]의
바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역] → [의역], 또는 양자 간 큰 차이
가 없는 경우 [오역] → [직역]의 형태로 했다.

Group A

Abraham Lincoln's Second Inaugural Speech

Fellow Countryman: At this second appearing (중략) The progress
of our arms, upon which all else chiefly depends, is as well known
to the public as to myself, and it is, I trust, reasonably satisfactory
and encouraging to all. *With high hope for the future, no prediction in
regard to it is ventured.*

- (1) With high hope for the future, *no prediction in regard to it is ventured.*

[오역] 우리는 미래에 대해 높은 희망을 갖지만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직역]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한 → 희망이 있는 한] [그 (점)에 / (희망적인) 앞날에] 관한 어떤 예측도 모험적이지 않습니다.

[의역]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있으므로, 조금도 주저 없이 희망적인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고명한 한 분의 번역 내용으로 출간 본에 게재된 부분이다. *any ~ not* 구조는 ungrammatical하지만 *no prediction in regard to it is ventured*의 의미구조는 **any prediction in regard to it is not ventured*로 보는 것이 옳은데, 부정주어는 망각하고 *is ventured*를 그대로 '긍정적'으로 번역하였다. 통사 지식의 문제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John F. Kennedy Remembers Robert Frost

October 27, 1963

(1) If Robert Frost was much honored during his lifetime, it was because a good many preferred to ignore his darker truths.

(2) Yet in retrospect we see how the artist's fidelity has strengthened the fiber of our national life. (3) If sometimes our great artists have been the most critical of our society, it is because their sensitivity and their concern for justice, which must motivate any true artist, makes him aware that our nation falls short of its highest potential.

(4) I see little of more importance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our civilization than full recognition of the place of the artist. (5) If art is to nourish the root of our culture, society must set the artist free to follow his vision wherever it takes him.

(6) We must never forget that art is not a form of propaganda; it is a form of truth. (7) And as Mr. MacLeish once remarked of poets, "There's nothing worse for our trade than to be in style."

이 연설문 역시 전문 번역가 반열에서 활동하는 통번역 관계자가 한 것인데, 물론 우수한 번역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여기서 지적한 곳 외에도 다른 부분의 번역이 우리말 자체가 이상하거나 핵심부분에서 원문의 의미

자체를 잘 살리지 못했거나 정반대의 오역이 감지되는 예가 있다. 모 신문사 월간지의 특별 부록에 전문이 소개되었으며, 이 부분을 EBS의 ‘영어명문독해’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는데, 특히 *his darker truths* 등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오역을 했다.

- (2) If Robert Frost was much honored during his lifetime, it was because a good many preferred to *ignore his darker truths*.

[오역] 로버트 프로스트가 생전에 큰 명예를 누렸다 해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드러낸 어두운 진실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직역] 로버트 프로스트가 일생동안 많은/못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숨겨진/드러나지 않은 진실/사실/결점/실상들을 무시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의역] 로버트 프로스트가 일생동안 많은/못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드러나지 않은 실상들은/본질들을 문제 삼지 않는 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두운 진실’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진실’에 ‘어두운 진실과 밝은 진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가 드러낸’이란 의미도 문맥 어느 곳에서도 유추할 수 없으며, 아래 [직역]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유는 *his darker truths*를 *his hidden* 또는 *concealed* [*secrets/truths/realities/faults*] 즉 ‘그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사실/결점/실상’의 의미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인 Kennedy 자신도 많은 결점이 있는데, 이를 들추어내면 존경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의미-화용론적 및 모국어 구사력의 문제점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 (3) Yet in retrospect we see *how* the artist’s fidelity has strengthened *the fiber of our national life*.

[원역]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예술가의 충실성은 우리나라의 삶의 핵심을 강화해주었습니다.

[직역]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그 예술가의 (로버트 프로스트의) [충실성이/충실성에 힘입어/충실성 덕분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본질을 강화해주었는지를/본질에 얼마나 힘을 북돋아주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의역]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예술가인 그분의 충실성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본질이 어떻게 강화되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the fiber of our national life*가 ‘국가의 삶’은 ‘국민의 삶’으로, ‘삶의 핵심’도 ‘삶의 본질’로 변경해야 하고, 단지 ‘삶의 본질을 강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부각되어야 하므로 *how*의 의미도 살려야 한다. 중의성, 모국어 구사력 및 통사론적 및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4) If sometimes our great artists have been the most critical of our society, it is because *their sensitivity and their concern for justice*, which must motivate any true artist, makes him aware that our nation falls short of its highest potential.

[원역] 때로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예술가의 동력인 예민한 감수성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리나라가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직역] 만일 [가끔은/때로는/이따금] 우리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어 왔다면, 그 이유인 즉 그분들의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관심사가 바로/분명 (*must*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진정한 예술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인데/요소가 분명한데, 바로 이점이 그 예술가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자기의) 최대한의 잠재력이 부족하다/잠재력을 최대한으로/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인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의역] (만일) 이따금 우리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어 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분들의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관심사(가 분명 모든 진정한 예술가에게 동기

부여 요소인데,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예술가가 인식하기로 우리나라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번역은 꼭 오역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마치 동시통역을 하듯이 단문으로 툭툭 끊어버리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힘들므로 피해야할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오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원작자가 단문으로 쓸 줄 몰라서가 아니므로 소재 언어의 중문, 복문, 혼합문을 단문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특권이 번역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착각하면 아니 된다. 더구나 *which*-clause는 non-defining relative clause여서 선행사 *sensitivity and concern*에 additional meaning을 부여하는 번역이 되어야 옳다는 점에서 통사 지식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their sensitivity and their concern for justice: ‘그들의 감수성과 정의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라 *makes*라는 단수동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their sensitivity and their concern] [for justice]]* 구조로 굳이 syntactic ambiguity가 있는 것으로 볼 필요 없이 ‘정의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과 관심사’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통사지식 및 모국어 구사력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 (5) I see little of *more importance*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our civilization *than full recognition of the place of the artist*.

[원역] 우리나라와 우리 문명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예술가의 자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직역] 예술가의 입지를/입장을 온전히/최대한으로 인정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와 우리 문명의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은 거의 없다고/드물다고 봅니다.

[의역] 우리나라와 우리 문명의 미래를 놓고 볼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입지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than full recognition of the place of the artist*는 전후 맥락으로 보아 ‘예술가의 [입장에서/신분으로] 최대한으로 발언을 [허가/인정]하는 것보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입지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로 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므로 모국어 구사력 및 화용론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다.

- (6) If art is to nourish the root of our culture, society *must set the artist free to follow his vision wherever it takes him.*

[원역] 예술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북돋워주는 것이라면, 사회는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직역] 예술이 [우리 문화에 자양분을 주는 / 우리 문화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사회는 [예술가가 / 예술가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 통찰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비전을 따라) 갈 수 있는 자유를 반드시 주어야 →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의역] 예술이 우리 문화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사회는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에 따라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원역]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는 contextual meaning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위의 직역과정의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통사 및 의미-화용론적 오류로 분석된다.

- (7) We must never forget that art is not *a form of propaganda*; it is a form of truth.

[원역] 우리는 예술이 선전의 형식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술은 진리의 형식입니다.

[직역] 우리는 예술이 (성격자체가) 선전을 하기위한 유형이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라는/성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역] 우리는 예술의 본질이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기 위한 유형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위의 [원역]에서 ‘예술이 선전의 형식’ 또는 ‘진리의 형식’이란 의미가 불명확하여 [의역]처럼 원전의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좋고, (4)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문으로 툭툭 단절하는 것도 지양해야할 점이다. 모국어 구사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 (8) And as Mr. MacLeish once remarked of poets, “*There’s nothing worse for our trade than to be in style.*”

[원역] 메크리시 씨가 시인들에 대해 말했듯이, “업으로 치자면 시를 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직역] 그리고 언젠가 메클리쉬 씨가 시인들에 대해 말했듯이, “(시인들이) [[할 일로는 / [타협을/거래를] [위해/목적으로]] 세류에 휩쓸려, 인기에 영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의역] 그리고 언젠가 메클리쉬 씨가 시인들에 대해 말했듯이, “(시인들이) 타협을 목적으로 세류에 휩쓸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시인의 탈을 쓰고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일입니다.”

우선 *in style* (= *in fashion*)에서 *style*을 ‘문체’로 해석하여 ‘시를 쓰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 엄청난 오역의 원인으로 보인다. ‘시인이 시를 쓰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라는 웃지 못할 내용을 재점검하지 않고 간과했다는 점은 결코 번역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to be in style*은 (시인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나 관점이 있어야지) [세상 흐름에 묻혀들거나, 세류에 휩쓸리거나, 인기에 영합하거나 하는 것은] (시인의 탈을 쓰고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일)이라는 의미이며; *for our trade*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로(는)’ 또는 ‘우리에게는’으로 번역해도 무난하지만, 거래를 위해; 타협/담합을 위해 → 권력자나 어떤 목적자나 일반 국민의 입맛에 맞게 그럴 듯하게 써주고 그 대가로 지위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라는 의미가 옳다. *for our trade*가 *in style* 다음에 위치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 뜻을 부각시키는 것이 전체의 의미를 살리기에 적합하다. 오역의 원인은 단지 중의성이나 문맥보다 역자의 상상력이 더 많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p>Dose-Response Assessment</p> <p>The dose-response curves that we are interested in here are the result of chronic toxicity; that is, the organism is subjected to a prolonged exposure over a considerable fraction of its life. (중략)</p> <p>That is, a plot of response versus dose is <u>required to go through the origin</u>. For noncarcinogenic responses, it is usually assumed that there is some <u>threshold dose</u>, below which there will be no response.</p>	<p>National Academy of Sciences</p>
---------------------------------------------------------------------------------------------------------------------------------------------------------------------------------------------------------------------------------------------------------------------------------------------------------------------------------------------------------------------------------------------------------------------------------------------------------------------------------------	-------------------------------------

- (9) That is, a plot of response versus dose *is required to go through the origin*.

[오역] 즉, 선량 대 반응을 도시하면 원점을 지나게 된다.

[직역] 즉, 선량 대 반응의 좌표는 반드시 [원점/기시점]을 지나야 한다.

[의역] 즉, 선량 대 반응의 좌표는 반드시 원점/기시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한다.

이 부분은 환경공학 관련 대학교재⁷⁾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is required*를 통사론적으로 너무 가볍게 처리한 번역 자세 문제인 것 같다.

<p>Reflections on Horror Movies</p> <p>(1) <u>The fact remains that there is a new separation between the scientist and the monster.</u> (2) Rather than being an extension of the doctor's evil will, the monster functions completely on its own, creating havoc through its predatory nature. (3) <u>We learn through charts, biological film, and the scientist's patient explanations that ants and grasshoppers are not the harmless little beasties they appear but actually voracious insects who need only the excuse of size to prey upon humanity.</u></p> <p>(4)And yet, if the individual scientist is absolved of all responsibility for the "thing," science somehow is not.</p>	<p>Robert Brustein</p>
--------------------------------------------------------------------------------------------------------------------------------------------------------------------------------------------------------------------------------------------------------------------------------------------------------------------------------------------------------------------------------------------------------------------------------------------------------------------------------------------------------------------------------------------------------------------------------------------------------------------------------------------------------------------------------------------------------	------------------------

- (10) The fact remains that there is a new separation between the scientist and the monster.

[오역] 그 사실은 그 과학자와 그 괴물 간에 새로운 분리가 있다는

7) Gilbert Masters, 1990, pp. 136-7

사실을 남긴다.

[직역] 그 과학자와 그 괴물 간에 [새로운 / 또 다른] [구별이/분리 (된) → 분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의역] 그 과학자와 (그) 괴물 간에 새로운 분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remain*을 타동사로 착각하여 *that*-clause를 목적어로 본 오역이며, *the fact*와 *that*-clause는 동격이다. ‘새로운 분리’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의미-화용론적 문제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11) We learn (through charts, biological film, and the scientist's patient explanations) [that ants and grasshoppers are not harmless little beasties they appear but actually voracious insects who need only the excuse of size to prey upon humanity].

[오역] 우리는 각종 차트, 생물학 관계 영화를 통해서나, 개미나 메뚜기들은 보이는 것처럼 해롭지 않은 작은 동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잡아먹을 정도의 크기에 대한 핑계만 필요할 따름이지만 실제로는 식욕이 왕성한 곤충들이라는 그 과학자의 끈기 있는 설명을 통해서 배운다.

[직역] 우리는 (각종 도표, 생물학적 영화와 그 과학자의 인내를 요구하는 각종 설명을 통해서,) [개미나 메뚜기들은 [보이는 것처럼] 해롭지 않은 작은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을/인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핑계/변명/발뺌] 거리로는 [몸집크기만 필요할 따름인 / 몸집크기 밖에 없는 → 몸집이 작다는 사실밖엔 없지만] 실제로는 [식욕이 왕성한 / 걸신들린] 곤충들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 알게 된다].

[의역] 우리는 각종 차트나, 생물학적 영화, 그리고 과학자의 끈질긴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서, 개미나 메뚜기들은 겉보기처럼 (작으니까) 전혀 해롭지 않은 작은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발뺌할 거리로는 몸집크기 밖에 없는, 실제로는 (인간이 먹을 것을 마구잡이로 먹어버려 간접적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걸신들린 곤충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that-절을 *explanations*와 동격명사절로 착각한 구문지식 부족에 기인한 오역이다; *that*-절은 *learn*의 목적어이다. 번역 전체가 의미가 통하지 않는 예이다.

South Korea snuff out Togo's dream June 14, 2006, CNN
 Frankfurt, Germany – Substitute Ahn Jung-hwan struck South Korea's 72nd minute winner. Ahn, a hero of his side's surprise run to the last four on home soil, struck an unstoppable right foot shot to claim three points for his side. "I am very happy for the first win," said Ahn, who was named man-of-the-match.

- (12) Ahn, a hero of *his side's surprise run to the last four on home soil*, struck an unstoppable right foot shot *to claim three points for his side*.

[오역] 이번 월드컵 참가 4명의 해외활동과 선수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안정환은 멈추지 않는 오른발 킥으로 한국 팀 승리를 이끌었다.

[직역] 고국에서 놀라운 4강 진출을 이끈 한국 팀 영웅 안정환은 한국 팀이 승점 3점을 기록하게 만든 [멈추지 않는 오른발 킥을 성공시켰다 →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오른발 킥을 성공시켰다].

[의역] 2002년 고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의 경이적 4강 진출에 수훈갑(영웅)이었던 안정환은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오른발 킥을 성공시켜 (자기 팀에게) 필요한 승점 3점을 안겨주어 한국 팀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는 모 기자가 영문뉴스의 한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사례로, 안정환을 해외활동과 선수라고 지칭하며 맨 마지막에 대표 팀에 합류했다고 번역했는데, *last four*를 '4강'이 아니고 '선수'를 지칭한다면, '경기에 참가한 마지막 4명'이란 집단이 되므로 문맥으로나 사실에 입각해서도 오역이 분명하다. 또 *surprise*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 안정환의 합류는 예상되어 있었고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또한 *to claim three points for his side*를 전혀 번역하지 않는 큰 오류를 범했다. 국제경기에서 '승리, 무승부, 패배

‘에 따라 주어지는 승점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듯하다. 2002년 월드컵에서의 한국의 선전을 언급하고자 했던 CNN 기자의 의도를 번역자가 ‘안정환이 해외활동과 선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합류했다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역한 것 같다. 즉 오역의 원인은 문맥보다 역자의 배경지식이 더 많이 작용한 결과로 번역자세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to claim three points for his side*을 ‘결과’로 봐서 “[멈출 줄 모르는 / 못 말리는 /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오른발 킥을 성공시켜 [자기/한국] 팀에게 [필요한/승점] 3점을 [안겨주었다 → 안겨주어 승리를 이끌어 냈다.]”로 봐야 한다. 이유는 ‘한국 팀에게 3점이 필요한 경우 ‘오른발 킥’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또는 ‘오른발 킥 하나로 3점을 얻었다’는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13) *"I am very happy for the first win," said Ahn, who was named man-of-the-match.*

[오역] 경기 후 안정환은 “첫 우승에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직역] “첫 승리에 아주 [행복하다 / 만족한다]”고 안이 말했으며, 그는 최우수 선수에 [지명/선정]되었다.

[의역] 안정환은 “첫 승리에 참으로 기뻐요.”라 했고, 마침내 그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다.

문맥의 자연스런 연결을 위해 ‘경기 후’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좋으나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인 *win*을 ‘우승’이라고 오역하는 오류를 범했다. *who*-clause를 통째 생략한 점이나, *man-of-the-match*라는 중요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번역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 번역자세 문제이며, 줄속 번역의 구체적 예를 보여준 것 같다. *who*-clause는 connective use로 번역해야 한다.

Report: Kim 'regrets'	October 20, 2006, CNN
China is viewed as a key nation in efforts to persuade the North to disarm, <u>as</u> it is the isolated communist nation's main trading partner.	

- (14) China is viewed as a key nation in efforts to persuade the North to disarm, *as* it is the isolated communist nation's main trading

partner.

[오역] 중국은 북한의 무장 해제를 설득할 핵심 국가이자 고립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직역] 중국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설득할 노력을 기울일 주요국가로서 간주되며, 이유는 중국이 고립된 공산국가의 주요 교역국가이기 때문이다.

[의역] 중국을 북한의 무장해제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국가로 간주하는데, 이는 중국이 바로 고립된 공산국가인 북한의 주요 교역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유’의 의미를 내포한 접속사 *as*를 무시하고 병렬문장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했다. *as*-clause의 위치나 앞의 comma로 보아 근본적인 이유보다 [직역]처럼 계속적 용법(connective)으로 역하는 것이 옳으며, 통사지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The Boarding House James Joyce
 Mrs. Mooney glanced instinctively at the little gilt clock on the mantelpiece as soon as she had become aware through her reverie that the bells of George's Church had stopped ringing. *It was seventeen minutes past eleven: she would have lots of time to have the matter out with Mr. Doran and then catch short twelve at Marlborough Street.* She was sure she would win.

(15) It was seventeen minutes past eleven: she would have lots of time to *have* the matter out with Mr. Doran and then *catch short* twelve at Marlborough Street.

[오역] 말보로 가에서 열리는 12시 단축 미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직역] 11시 17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Mr. Doran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12시 전에 말보로 가에 도착할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의역] 1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Mr. Doran과 그 문제를 매듭짓고, 12시 전에 말보로 가에 도착할 시간이 빠듯하나마

충분할 것도 같았다.

이 부분은 영어전공자인 전문번역가에 의한 것으로 *short 12*에 대한 오역의 예이다. 이를 ‘12시 단축 미사’로 해석했는데 ‘단축 미사’라는 형태가 천주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구조상 또는 어휘상 다양성도 아닌 역자의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자세가 주원인인 것 같다. *short*는 부사로 ‘at a point before a given boundary, limit, or goal’라는 의미이고 *catch*가 *to have*의 *have*와 병치요소이므로 [직역]-[의역]처럼 번역되어야 하며, 통사론적 및 의미-화용론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Group B

이 부분에서는 부과한 7문단 중 외관상 가장 평이한 구조이지만 번역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소재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3번 문단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역자 중 무작위로 3명의 번역물만 원인 분석의 자료로 한다. 연구자가 요구한 대로 역자의 [직역]과 [의역]을 수정 없이 게재하여 오역의 일관성을 볼 수 있도록 동일 역자에게 동일 번호를 부여하였다. 모든 번역 내용이 꼭 오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역’ 부분의 공통 원인 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역 부분이 중구난방이어서 공통 원인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오역의 원인이 각 역자의 소재언어 및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과 구사력뿐만 아니라 번역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필요에 따라 사례별로 분석할 수도 있다.

대조가 가능하도록 ‘모범 번역’은 (초역)과 (모범역)으로 정리하고, 연구 대상자들 중 특히 대학원생들의 [직역]과 [의역]과정에서 평가대상임을 염두에 두고 임의로 ‘차이점’을 만들어낸 점이 감지되어 주로 대학원생들의 [의역]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단, (1)은 참고로 둘 다 소개한다.

Advice to a Young Tradesman

Benjamin Franklin

(1) Remember that money is of a *generating nature*. (2) Money can beget money, and its *offspring* can *beget* more, and so on. (3) Five dollars turned is six, *turned* again it is more. (4) *He*, for example, *that* kills a breeding pig destroys all her offspring to the thousandth generation. (5) He who *murders* a penny destroys all that it *might have produced*, even scores of dollars.

(6) The good *paymaster is lord of* another man's purse. (7) He

who is known to pay punctually and exactly to the time he promises, may at any time, and on any occasion, borrow the money his friends can spare. (8) This is sometimes of great use. (9) After industry and frugality, nothing contributes more to the raising of a young man in the world than punctuality and justice in all his dealing; therefore never keep borrowed money an hour beyond the time you promised, lest a disappointment shut up your friend's purse forever.

(1) Remember that money is of a *generating nature*.

- [직역] 1. 돈은 하나의 생산되는 자연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라. <p>
 2. 돈은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k>
 3. 화폐는 발생하는 성질을 지닌다. <j>
- [의역] 1. 돈도 무언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일부이다. <p>
 2. 돈은 스스로 생성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k>
 3. 화폐는 지속적으로 산출해 내는 성질이 있음을 알아라.
 <j>
- (초 역) 돈은 생산하는 특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범역) 돈은 새끼를 치고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generating nature*의 의미 파악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예인데, [의역2]에서 그 의미를 조금은 살린 듯하나, ‘생성시키는 본성’이라는 덜 명확한 목표언어로 소재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는 힘들다. 의미-화용론적 및 모국어 구사력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Money can *beget* money, and its *offspring* can beget more, and so on.

- [의역] 1. 돈이 돈을 벌고, 그것의 잘 활용하면 많은 것을 산출할 수 있다.
 2. 돈은 돈을 낳고 또 스스로 배가되어진다.
 3. 돈은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번다.
- (초 역) 돈이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새끼들은 갈수록/점점 더 많은 돈을 낳을 수 있다는 등등이다.

(모범역) 돈이 돈을 벌게 되고, 이렇게 새끼에 새끼를 친 돈(들)은 갈수록 더 늘어난다.

*offspring*의 의미를 목표언어로 잘 살리지 못했고, [역자3]의 경우 구두점 사용법에도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자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이다.

(3) Five dollars which is when it is *turned* is six, when (*it is*) *turned* again it is more.

- [의역] 1.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
 2. 5불이 6불이 되고 변환수록 더 많이 불어난다.
 3. 5달러가 돌아다니면 6달러가 되고, 그 돈이 더 돌아다니면 더 많은 돈이 된다.
 (초 역) 돌린/굴린 5달러는 6달러가 되고, 또 다시 돌리면 그 것은 더 많은 돈이 된다.
 (모범역) 5달러를 굴리면 6달러가 되고, 또 굴리는 만큼 (더) 늘어난다.

세 역자 공히 *turned*와 *when*-clause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소재언어의 통사 지식과 목표언어의 자의적 구사력이 부족한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4) *He*, for example, *that* kills a breeding pig destroys all her offspring to the thousandth generation.

- [의역] 1. 종자돼지를 죽이는 사람은 천대에 이르는 재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2.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돼지를 죽인다는 것은 그 돼지의 소산 및 세대 모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3. 예를 들어, 그가 임신한 돼지를 죽인다면 그 돼지의 후손 모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초 역) 예를 들어, 새끼를 낳고 있는 돼지를 죽이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돼지의 후손들을 모두 죽인다.

(모범역) 분만 중의 암돼지를 죽이는 자는 그 돼지의 천대 후손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셈이 된다.

[역자1]은 소재 내용판단에 문제가 있고, [역자2]는 소재언어의 의미를 [의역]에서 비교적 잘 살리고 있다. [역자3]의 경우 세 역자 중 연령도 가장 낮고 발화능력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for*-PP의 삽입으로 번역과정에서 공히 *he who/that* 문형의 기본 의미도 살리지 못한 것은 통사론적 지식은 물론 번역 자세에 문제로 보인다.

(5) He who *murders* a penny destroys all that it *might have produced*, even scores of dollars.

[의역] 1. 종자돈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가 이룰 수 있는 많은 부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2. 돈 몇 푼 때문에 당장 돼지를 죽이는 것은 장래 큰 재산이 될 고부가가치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3. 1원을 버리는 사람은 그들이 벌 수 있는 수 천원을 버리는 것이다.

(초역) 1페니를 망치는 자는 그것이 생산해낼 수도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수십 달러까지도 망가뜨린다.

(모범역) (마찬가지로) 동전 한 닢을 함부로 없애버리는 자는 그것이 종자돈이 되어 불릴 수도 있는 모든 돈, 심지어는 수십 달러에 이르는 돈까지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역1]은 전체문맥과약 실패로 *murders*에 대한 지나친 비약을 피했거나 적당히 얼버무린 예이며, 세 역자 모두 *might have produced*의 의미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 통사적 및 의미-화용론적 문제로 보인다.

(6) The good *paymaster* is lord of another man's purse.

[의역] 1. 좋은 살림꾼은 다른 사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2. 제시간에 돈을 잘 지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의 주인도 될 수 있다.

3. 부자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지배한다.

(초역) [충실한/훌륭한 급료지급담당자는 → 똑 소리 나게 돈을 갚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영유한다.

(모범역) 날짜를 어기지 않고 돈을 갚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 속의 돈은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다.

[역1, 3]은 *paymaster*를 오역했으며, 세 사람 모두 *be lord of*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paymaster*는 ‘급료지급담당자’가 아니라 ‘어김없이 돈을 갚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맥락상 옳다. *be lord of*는 ‘-을 영유하다’는 의미이고, *lord of another man's purse*에서 *lord*를 *the lord*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 지갑의 군주/주인공’이라는 오역의 가능성이 잔존한다. 통사론적, 의미-화용론적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7) He who is known to *pay* punctually and exactly to the time which he *promises*, *may* at any time, and on any occasion, *borrow* the money which his friends *can spare*.

[의역] 1. 재정을 정확히 지불하는 사람은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2. 언제든 어는 경우든 그가 약속했던 때 정확히 시간을 잘 엄수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그의 친구들의 아껴두었던 돈을 빌린다.

3.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초역) 약속한 시간/시점을 엄수하여 정확하게 돈을 갚는다고 알려진 사람은 아무 때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친구들이 저금할 수도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다.

(모범역) 빌린 돈을 약속한 시점에 맞추어 틀림없이 갚는다고 인식된 사람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면) 친구들이 은행에 맡길 돈(이라/까지)도 꾸어 쓸 수 있다.

[역1]은 행위자와 수혜자가 뒤바뀌었고, [역3]은 *pay*보다 *promise*에 더 중점을 둔 오류를 범했고, [역1-3] 모두 *can spare*를 오역했으며, *at-PP*와 *on-PP*가 삽입된 것이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may borrow*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은 구문지식의 부족 또는 적당주의가 작용한 전반적인 번역자세 문제로 보인다.

(8) This is sometimes of great use.

- [의역] 1. 이러한 것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2. 이것은 정말 유용하다.
 3. 그것은 때때로 유용하다.

(초 역) 이것은 때로는 대단히/참으로 유용하다.

(모범역) 경우에 따라 이런 점은 정말(로) 유용한 일이다.

[역1]의 use가 importance로 오역되었으며, 세 역 모두 this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역하여 함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예로 모국어 구사상 문제로 볼 수 있다.

(9) *After industry and frugality, nothing contributes more to the raising of a young man in the world than punctuality and justice in all his dealing; therefore never keep borrowed money an hour beyond the time which you promised, lest a disappointment should shut up your friend's purse forever.*

- [의역] 1. 열심히 사는 것보다 돈 거래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 한다.
 2. 근면과 절약 이후에 모든 그의 거래에서 시간엄수와 정의보다 세상에서 젊음이 하나를 양성하는 것에 더 기여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결코 당신이 빌렸던 돈이 약속시간보다 한 시간이 넘어 당신 친구의 지갑이 영원히 닫혀 실망하지 않도록 하라.
 3. <누락>

(초 역) [근면과 절약/근검절약(을 실천하고 난) 후에/다음에 → 일단 근검절약이 습관화 되면/몸에 배이(고 나)면], 한 젊음 이를 세상 속에(서) (일으켜) 키우는데 그의 모든 업무관계에서 [약속엄수와 정의/공정성 보다 더 기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빌린 돈은 약속한 시간에 한 시간도 늦게 내버려두면/값으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실망으로 친구의 지갑

을 영원히 단아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지갑을 영원히 단아버리고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

(모범역) 일단 근검절약이 습관화 되면/몸에 배이(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한 젊은이가 출세하는 데는 자기의 모든 업무(관계)에서 약속엄수와 공명정대한 (일)처리 능력의 기여도가 무엇보다 높다; 그래서 단 한차례의 실망으로 인해서 친구가 지갑을 영원히 단아버리고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불상사가 없게 하려면,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약속한 시간들 단 한 시간이라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장이 전체 의미흐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after industry and frugality*: ‘근검절약을 (실천)하고나면’ → ‘근검절약 다음으로 (중요한/기여도가 높은 것은)’ → ‘일단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고 나면’으로 단계적으로 의역할 수 있지만, ‘산업과 절약 후’라고 오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역1, 2] 공히 바른 의미피악에 실패했고, 특히 *the raising of a young man in the world*의 구문에서 *raising*과 *in the world*의 상관된 의미해석에 오류를 범했으며, 더구나 *After industry and frugality* 대한 의미를 바로 살리지 못한 것은 소재언어에 대한 통사적 및 의미-화용론적 능력 부족으로 판단된다.

3. 맺 음 말

앞서도 언급한 일이지만 ‘직역’보다 목표언어 즉 모국어의 능력이 최대한 잘 발휘된 ‘의역’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며, 정확한 ‘의역’은 소재언어의 정확한 ‘직역’에 바탕을 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일부러 오역을 하는 일은 없겠지만, 각 사례별 분석에서 본 바를 종합해보면, 번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누락시켜버리는 등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 자세와 현실에 안주하여 더 이상 연구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차후에도 어떤 세부적인 오역원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정리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보면 소재언어나 목표언어에 대한 성분구조 및 의미

-화용적 언어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인데, 외국어 교육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의성 (ambiguity), 전제 (presupposition), 함축 (implication), 함의 (entailment) 같은 개별 문장의 의미적 특성,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관계 등에 중점을 둔 다각적인 번역연습 훈련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특히 출판물의 경우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습득이나 누락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문학작품 등의 감상을 위해 일부 선진국, 특히 이웃 일본에서처럼 국립 또는 국고보조 번역물 연구나 등급 책정기관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자국민에게 판단·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면,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된 졸속 또는 해적 번역본들은 그 설 땅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번역물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김병원. (1987). *왜 영어를 잘 못하는가*. 서울: 외국어연수사.
- 김병원. (1988). *글의비밀*. 서울: 보성사.
- 김병원. 1989-12. *영어 실력의 기능화 실험연구*. 포항공과대학 응용언어연구소.
- 김병원, 장태엽, Eric Abrahamson. (1990). *성인용 CALL 기초영어프로그램 연구개발보고서*. 포항공과대학 응용언어연구소.
- 김병원, 손형숙, 조권한, Brian Poole, Laurie Baker, Susan Knox. (1989). *대학영어: 종합교정법과 목표별 학습법의 비교연구*. 포항공과대학 응용언어연구소.
- 배두분. (1997).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조선일보. (2004). *명문과 명연설*.
- 한국영어교육 100년 기념세미나. 1982. 1. 14. 10 AM. 세종문화회관.
- Chomsky, N. (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North Holland.
- Kim, Byongwon. (1987). *Why Can't You Have a Better Command of English?* Seoul: Oegugoyonsusa.
- Masters, Gilbert M. (1990).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 2nd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 Oller, J., & Richards, J. (1973). *Focus on the learner: Pragmatic perspectives for the language teacher*. Roeley, Mass.: Newbury

House.

Radford, Andrew.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문 출전>

Abraham Lincoln's Second Inaugural Speech

Benjamin Franklin. Advice to a Young Tradesman

CNN. Report: Kim 'regrets' nuclear test. October 20, 2006.

CNN. South Korea snuff out Togo's dream. June 14, 2006.

EBS. 영어명문독해. 2:25 PM, June 6, 2006.

James Joyce. The Boarding House.

John F. Kennedy. Remembers Robert Frost

Robert Brustein. Reflections on Horror Movies

Sitcom Friend 6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se-Response Assessment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Cambridge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Encarta

Encyclopedia Americana

Onelook.com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Wikipedia

Wiktionary

<Journals>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8일자 (토요일) 27면 '학술난'

_____. 2005년 5월 7일자 (토요일) 17면 '출판난'

<강연>

최정화. 2006년 11월 6일. 외국어와 통역 번역. 선문대학교

윤성규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선문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전화: (041)530-2437

이메일: sungkyu@sunmoon.ac.kr

Received: 30 March, 2007

Revised: 10 May, 2007

Re-revised: 30 May, 2007

Accepted: 10 June, 2007